

< 성묘 예식 >

인도: 가족 대표

개 식 사 ----- 인도자
신앙고백 ----- 다같이
찬 송 ----- 435장(1,2절) ----- 다같이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후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 세상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 하소서

기 도 ----- 말은이
성경말씀 ----- 출애굽기 6:8 ----- 다같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복음의 씨앗을 온 세상에 전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재산은 육으로 사는 동안 잠간의 편안함을 주지만, 믿음의 유산은 영원하도록 행복을 주는 영생의 복입니다. 우리 가문이 자손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 모두 영생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살리고, 치료하고, 구원하는 믿음의 위인들이 우리 가문을 통하여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고, 앞서 가신 우리 선조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손대대로, 그리고 영원하도록 복을 누릴 것입니다.

찬 송 ----- 435장(3절) ----- 다같이

3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 기 도 ----- 다같이

추석(秋夕) 감사 예배



2022년 9월 10일 (음력 8월 15일)



< 추석 감사 예배 >

인도: 가족 대표

개 식 사 ----- 인도자
신앙고백 ----- 다같이
찬 송 ----- 301장 ----- 다같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 도 ----- 말은이
성경봉독 ----- 살전 5:16~18 ----- 다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 씀 ----- 감사는 행복을 불러온다 ----- 인도자
찬 송 ----- 559장 ----- 다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주 기 도 ----- 다같이

< 감사는 행복을 불러 온다 (데살로니가전서 5:16~18) >

오늘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1. 내가 제로(0)로 내려오면 감사 못할 일이 없다.

늘 나보다 잘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모자란 것, 부족한 것만 찾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따져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2. 감사 못할 상황에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매일 다섯 가지 감사’의 기적, ‘가와가미 기이찌’가 매일 1만 번씩 감사를 외쳐서, 전신마비에서 일어난 기적 등을 보면서,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도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해 주시겠다고 하였으니, 감사하고, 축복하고, 긍정을 말하여, 기적을 창조합시다.

3. 불평은 불행을 불이지만, 감사는 행복을 붙인다.

근묵자흑(近墨者黑)이라는 말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매일 불평만 해 보십시오. 아마 한 달이 지나면, 인상도 어그러지고, 마음도, 몸도 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웃으며 감사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인상도 밝아지고, 마음도, 몸도 생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감사로 행복을 창조하고, 감사로 행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행복의 메신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